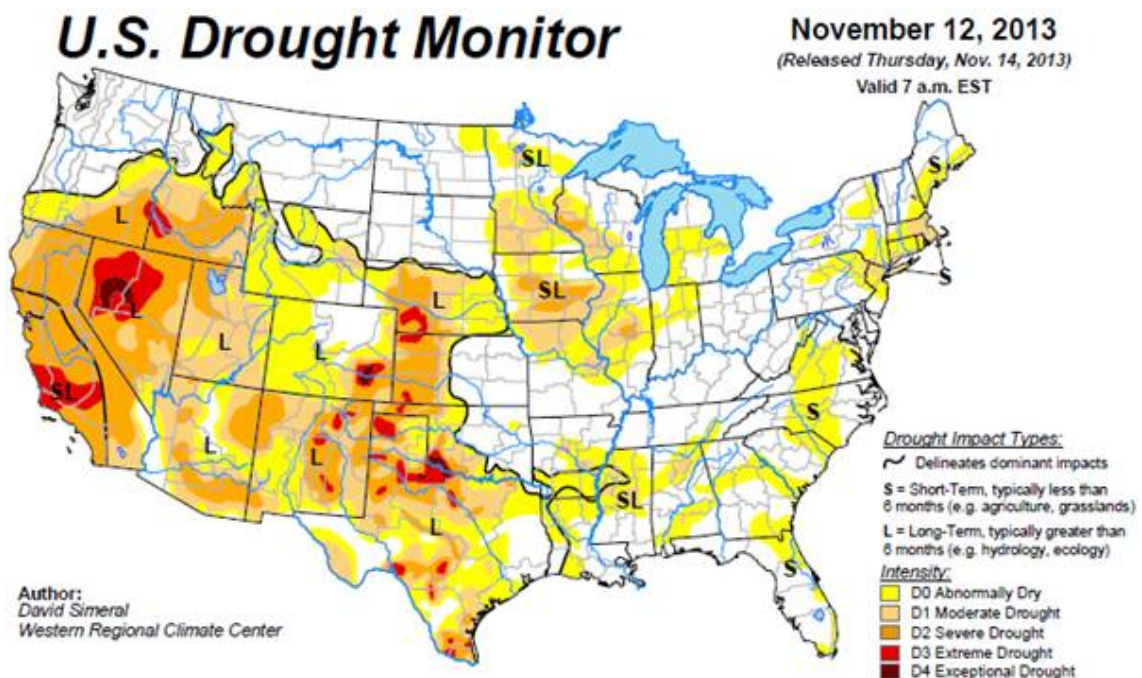


※ 11월 19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0, No. 47)

□ 미국 기후 현황(11/10~11/16)



지난 한 주간 주요 농업생산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으며, 많은 곡물의 수확활동은 거의 완료되었다. 특히, 북부 콘벨트 지역의 옥수수 수확을 제외하고, 중서부 지역의 수확작업은 거의 완료된 상황이다. 그러나 중부와 동부 콘벨트 지역의 경우 지난 11월 17일 일요일 돌풍이 불었다. Illinois, Indiana와 서부 Kentucky 지역에서는 혹독한 계절이 시작되었으며, 2006년 이후 11월에 치명적인 토네이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추운 날씨가 중서부 지역을 엄습하였으며, 토네이도의 영향으로 동부지역에서는 한랭전선이 접근하였다.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적어도 5°F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조함은 남부 고원평야 지대에 지속되었으며, 가을 밀의 생산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평야지역에 잔존한 건조한 날씨는 일반적으로 가을 밀의 착과(establishment)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면화, 수수, 해바라기와 같은 여름작물의 수확은 중부 지역에서 지속되었다.

□ 주간 농업 현황(11/11~11/17)

대체로 건조한 날씨는 작물 수확에 도움을 주었다. 남부와 중서부 지역의 기온은 평년대비 낮았으나, 서부와 평야지대에서는 평년대비 기온이 높았다. Carolinas and Tennessee 지역의 기온은 평년대비 평균 5°F 보다 더 낮았다. Ohio 계곡, Alabama, Mississippi, Washington의 총 강수량은 최소량을 기록하였다.

- 옥수수: 전국적으로 주말 기준 옥수수 수확량은 91%로 전년 동기대비 8%p 낮았지만, 5년 평균 대비 5%p 앞선 것으로 나타난다. North Dakota, Michigan, Wisconsin의 농가들의 지난 한 주 옥수수 수확량은 각각 14%, 13%, 12% 로 나타났다.
- 대두: 주말 기준 대두의 수확량은 95%로 전년 동기대비 3%p 낮았지만, 5년 평균 대비 다소 뒤쳐진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한 주 동안 Kentucky 지역 농가들의 대두 수확량은 12% 이었으며, Tennessee 지역 농가들의 대두 수확량은 19% 이었다. 두 지역 모두 5년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다.
- 가을 밀: 11월 17일 기준, 전국 가을 밀의 발아는 85%로 전년 동기대비 6%p, 5년 평균 대비 4%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좋음/아주 좋음 상태의 겨울 밀은 63%로 전주 대비 2%p 낮았고, 전년 동기대비 29%p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 세계 기후 현황(11/10~11/16)

- 유럽: 전 대륙에 걸친 차가운 기후로 야외작업은 지체되었지만, 토양에 필요한 수분은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 프랑스의 습한 날씨는 옥수수의 수확을 지체시키고 있다. 전년 대비 확실히 수확이 지체되고 있다. 더욱이 남부지역은 지중해성 폭풍과 강수로 스페인,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은 10-90mm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강수량은 하계작물인 면화의 수확을 지체시키고 있지만, 동계작물에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 기온은 평년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및 폴란드는 따뜻한 기온이 끝나고 차가운 기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이탈리아와 발칸지역은 동계작물과 채소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기온이 계속되고 있다.
- 구소련(서부): 비계절적으로 따뜻한 기후는 몇 주 계속되고 있으며, 북부지역에는 약한 강수량을 보이고, 남부지역은 건조한 기후를 보인다. 기온은 평균 2-7°C 정도로 평년보다 높아 주요 작물 재배지역의 작물 생장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가을밀과 유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동아시아: 슈퍼태풍 Haiyan이 남중국으로 물러나면서 남부지역의 대부분에 50-200mm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풍부한 수량은 겨울작물인 유채와 기타 채소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반면 북중국 평원의 가을밀 재배지역은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고 있다.

- 남동부아시아: 슈퍼태풍인 Haiyan의 폭우는 75-225mm로 북부 필리핀을 강타하였다. 태풍에 의한 강수와 강풍의 피해와 함께 해일에 의한 생산지역의 바닷물 오염으로 이후 생산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호주: 서부와 남부 및 북서부 빅토리아 지역의 건조한 기후는 밀, 보리, 카놀라의 성숙과 수확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수확을 앞둔 작물의 품질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빅토리아를 제외한 지역과 남부 New South Wales 지역은 강수량으로 겨울작물의 성장과 하계작물의 수확에 장애를 주고 있다. 남부와 동부 호주지역의 기온은 평균보다 약 4°C 정도 낮았고, 서부 호주지역의 기온은 평균보다 약 2-4°C 높았다.
- 아르헨티나: 적당한 강수량은 하계작물과 유지작물의 식재에 대한 전망을 향상시키고 있다. 주간 기온은 평균 1-2°C 높게 나타난다. 농업부에 따르면, 해바라기는 11월 14일까지 69% 식재되었고, 옥수수과 대두는 각각 40%, 26% 식재되었다. 전년 동기보다 식재 시기가 약간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 브라질: 전반적인 강우는 대두와 하계작물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주요 농업지역인 중서부 지역(Mato Grosso 등)의 강수량은 25-50mm 정도이다. 주간 기온은 2-3°C가 평균보다 높다. 한편 건조한 지역의 사탕수수는 생육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